

“나와 豫防醫學” - 어제와 오늘

宋仁炫

全南大學校 醫科大學 名譽教授

1949年 6月 지금의 全南醫大의 全身인 光州醫大를 卒業하면서 나는 앞날을 微生物學 研究라는 不可知의 學問에 無作定 依託하고 醫師로서의 새 길을 출발하기 始作하였다. 그것은 1946年 내가 2學年 在學中 解放된 우리나라에 大流行한 콜레라의 防疫을 위해서 豫防接種劑의 生産을 政府委託下에 微生物學教室에서 當時의 全燾基教授 指導下에 推進되고 있었는데 나도 그 team의 一員으로 相當히 熱心히 그 일에 從事하였든 因緣으로 거의 卒業과 同時에 自意的으로 決定되었던 것입니다.

그後 2個年半 微生物學教室의 助教로서 熱心히 研究에 從事하였으나 그 當代의 여러 가지 與件으로 細菌培地의 製造, 滅菌作業 等等의 研究를 爲한 必須先行 作業들의 複雜함과 不安全은 나로 하여금 厭症을 느끼게 하였고 研究라고 하는 課程의 成果도 遲遲不進하여 앞날의 展望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感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衛生學 講義次 光州를 來往하셨던 沈相煌 先生과 當代 學長이셨던 李鐘綸 先生 그리고 教務主任인 全燾基 教授 등과 相議가 되어 衛生學教室을 새로 開設하기로 決定하고 나를 그 衛生學教室에 助教로 採用키로하여 1952年 1月 20日에 藥理學教室의 一室을 割愛 配定받아 衛生學教室의 看板을 걸고 나를 發令하여 그 房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豫防醫學과 因緣을 맺게 된 動機이고 始發이며 그後 停年退任까지 四十餘年을 걸어 온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54年 5月에는 當時의 保健部 傘下에 韓凡錫氏를 科長으로하여

開設된 韓國公衆保健院에 入學하여 未洽하나마 School of Public Health 식의 教育을 받을 수 있는 特典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美八軍의 軍醫官, 疫學者들, 保健部의 關係官들 그리고 著名한 斯界의 權威者들이 教授陣으로 招請되어 約一個月間의 公衆保健의 教育을 받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其間 中에 받은 教育中 가장 記憶에 남는 印象的인 特別講演은 Haward 大學의 Dr. Leavel이 來韓 招請되어 講演한 '5 levels of prevention'의 特講으로 只今도 記憶에 生生하게 남아있는 印象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機會 等を 通해서 조금씩 公衆保健을 理解해 가는 過程을 겪고있는 中에 1955年 9月에는 마침 美國 Rockefeller 財團의 獎學金을 얻어 North Calorina大學에 留學할 수 있는 幸運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一年의 예정期間을 半年 더 延長하여 외롭고 어려웠던 修學을 하는 途中에 나름대로 習得한 것은 美國이나 우리나라나 國民의 健康을 維持 增進하는데 必要한 Public Health의 principle은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그 principle을 各己 그 나라의 주어진 與件下에서 어떻게 適用 投入해 가야하는 点이었습니다. 그 点을 중점적으로 習得하기 爲하여 努力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몇가지의 課題는 그것들을 實踐해 나가면서 最善의 方法을 摸索해 가는 只今の R & D 식의 approach가 必要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의 몇가지 것을 歸國하면 꼭 해보아야겠다고 決心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1) 大學生들을 相對로 하는 事業의 展開였습니다. 卽 School Health Service를 實驗的으로 于先 接近하기 容易한 내가 勤務하고 있는 全南大學校의 學生을 相對로하여 漸進的으로 Health Service를 展開하면서 必要한 部分의 作業을 取捨 補完하여가는 식의 그야말로 研究와 奉仕 그리고 教育의 大學 本來의 目的을 達成한다는 意味에서도 保健과 大學의 呼吸을 一致시켜가는 作業이 꼭 發足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歸國하던 1957年 그해 9月 15日에 全南大學校 學生保健所를 新設 發足시키고 내가 그 책임자로 任命되어 作業을 始作하였습니다. 그 當時의 全南大學校의 初代 總長이셨던 崔相彩 博士가 醫師 出身인 관계로 比較的 容易하게 그 案이 受諾되었고 事業의 推進도 좋은 後援을 얻어 成功的이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빠른 初創期의 大學保健機關 開設로서 注目받는 事業이 되었습니다. 現在도 豫防醫學教室 staff들이 그 運用을 責任지고 交代해가면서 그 任務完遂에 努力하고 있는 터임으로

앞으로도 밝은 事業의 展開가 期待된다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2) 地域社會를 相對로하는 公衆保健事業의 展開입니다. 公衆保健이 勿論 地域社會를 떠나서는 存立할 수 없고 地域社會 속에서 成長, 成熟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地域社會를 把握하고 必要한 保健事業을 展開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必要도 없는 철칙입니다. 따라서 于先 이와같은 일을 推進하기 爲해서는 먼저 示範對象 地域社會의 選定이 必要할 것이며, 둘째 무슨 事業을 할 것인가하는 事業의 選定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對象 地域社會를 醫科大學 周邊의 鶴洞, 南洞 等 約 300世帶에 이르는 地域을 對象地域으로 일단 選定하고 漸次 擴大해 나갔으며, 해야할 公衆保健事業으로는 母子保健事業을 選擇하기로 決定하였습니다. 이 事業을 如何히 推進할 것인가? 하는 方案設定을 놓고 苦心하든 중 이 事業을 위해서는 附屬病院을 背景으로하는 事業의 推進母體를 設立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것을 母子保健相談所라는 名稱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決定하였습니다. 그러한 計劃을 推進하기 爲해서는 힘든일이기는 하지만 病院內 各課長을 설득해야 하였고 이 案을 病院課長會議에서 通過시켜야하는 어려움을 甘受 克服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이 母子保健事業의 完遂를 爲해서는 最小限 産婦人科, 小兒科 그리고 皮膚科의 協助가 不可缺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大部分의 課長들은 無關心하고 一部는 그런 事業이 무슨 必要가 있는가하여 反對하였지만 多幸히도 一部 課長은 나의 主張을 理解하고 協助하여 주었으며 이 힘든 作業은 1958년말에 結實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母子保健事業을 施行해 나가는데 絶對로 必要한 要員의 確保 특히 看護要員의 確保가 附屬病院長의 特別 配慮로 可能하게 되어 용기백배하였고 豫防醫學教室의 全力을 傾注하여 事業에 着手해 나가고 있는 瞬間 好事多魔라고나 할까 61年 7월에 軍動員의 召集을 받아 一瞬 모든 計劃들은 一旦 停止의 悲運을 맛보지 않을 수 없는 破局을 맞게 되었습니다. 62年 7月 軍을 除隊하고 다시 大學에 復歸하여 새로운 大學生活이 再開될 때까지 겪어야했던 虛脫함은 나름대로 컷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一年의 軍服務를 마치고 復歸하고보니 이러한 事業들은 나의 計劃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런대로 命脈을 維持하여 存續하고 있고 나를 기다리더라도 한 듯 하여 62年 1月에는 全南大學生保健所의, 63年 3月에는 母子保健相談所의 運營責任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希望찬 再出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美國 留學을 마치고 歸國하여 하고자 했던 일들 中 上記한 두가지의 事業을 해보는 것외에도 衛生學教室이라는 教室 名稱을 豫防醫學教室로 바꿔야 하겠다는 생각은 歸校後 즉시 實踐에 옮겨졌고, 教室의 建物은 病院側에 있는 單獨 單層建物 約 30坪을 新規로 配定받아 醫科大學 豫防醫學教室의 看板을 새로 만들어 옮겨달고 移舍하였습니다. 그 建物에는 豫防醫學教室외에 一部를 全南大學校 學生保健所로 또다른 一部를 大學病院 母子健康相談所로 하여 役割과 技能을 나름대로 統合하여 運營하였으며 豫防醫學教室員과 學生保健所의 職員과 看護師, 母子健康相談所의 保健看護師들이 함께 勤務하고 같이 公衆保健事業을 討論하였습니다. 그야말로 School Health을 MCH를 통한 아마 醫科大學으로서는 처음이 아닌가하는 豫防醫學과 公衆保健事業이 光州의 一角에서 興味롭고 意味있게 胎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當時의 우리 大韓豫防醫學會의 움직임을 보면 勿論 解放직후부터 存在하고있었던 것이지만 學會는 解放後初期에는 서울大學의 沈相煌教授를 會長으로 모시고 各大學의 教室 主任格인 豫防醫學教授들은 거의 全員이 沈相煌教授任의 弟子 또는 師弟의 關係에서 모두 和睦한 團結을 보이면서 한 家族같이 運營되었습니다. 解放當時 存在하였던 서울의 3個大 卽 서울, 延世, 首都(後에 高麗)醫大와 地方의 大邱, 光州가 既存醫大로서 存立하였고 그後 發足한 梨花, 釜山, 가톨릭 3個大學을 合하여 6個 醫大가 주로 學會活動을 主導하였고, 그 運營의 主導的인 役割은 서울의 5個大가 거의 輪番的으로 그 手苦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年代 中盤期에 처음으로 大邱慶北醫大가 地方大學으로는 最初의 主導任務를 맡아 地方時代를 開創하였고 그後 光州의 全南大도 맡아야 한다하여 1976~1977年의 17代 會長職을 내가 맡아서 하게되었습니다. 地方大學으로 學會를 맡는다는 것이 힘든 일이고 教室員數도 그 當時에는 充足치 못하여 苦衷이 大端하였지만 教室의 金炳佑教授와 梨花大에 移籍하였던 教室出身의 崔三燮教授가 總務와 學術의 重責을 맡아 遂行하여 주어서 大過없이 그 責任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을 只今도 千萬多幸한 일로 나의 豫防醫學記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其間中에는 우리 豫防醫學會가 國內의 다른 모든 醫學會들보다 先

進的으로 醫學教育의 學習目標을 作成하는데 成功했다는 事實이 자랑스럽습니다. 勿論 그後에 繼續 우리 學會員들에 의해서 補完되었고 다듬어져야하는 不充分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動機가 되어 다른 學會들도 앞다투어 각기 教育의 學習目標을 作成하고 있는 것을 볼때에 우리의 하나의 자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學會로서의 記憶해야할 事實의 하나는 豫防醫學 專門醫制度의 施行입니다. 이것은 1963年度의 일로 생각합니다만 當時의 學會長이신 首都醫大의 朱仁鎬教授님께서 推進하여 이 制度를 成立시킨後 처음 專門醫資格試驗에서는 試驗官이 二重으로 選定되어 一旦 試驗官이 受驗生의 資格試驗을 實施하고 또다른 試驗官들은 그 試驗官들의 資格을 試驗하는 式의 同時 二中資格試驗이라고나 할까 하는 재미있는 方式으로 第1回 資格試驗이 실시되었다는 事實이 記憶에 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制度化된 여러 專門醫資格中에서도 다른 臨床科目이나 疾病과 直接關係있는 다른 여러 科目들은 疾病을 治療한다는 問題와 直結되어있는 것들이기에 그 制度의 活用은 힘들어 애쓰지 않아도 smooth하게 잘 進行되는 傾向이지만 우리 豫防醫學은 治療와는 無關하고 도리어 反對로 健康維持나 健康의 增進과 關係되는 科目의 專門醫이기 때문에 그 活用に 있어서는 우리 學會側에서 뿐 아니라 國家的, 社會的인 모든 分野에서 더욱 그 活用效率을 높이기 爲한 努力과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豫防醫學은 全般的 國民保健管理에 있어서는 主導的인 立場에 서있으면서 健康을 爲主로 생각하는 健康 主導的인 學問임으로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 派生되는 여러 問題와는 積極的으로 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家族計劃의 問題解決로 國民健康確保와 向上을 圖謀하기 爲하여 그 解決組織으로 家族計劃協會를 構成하는데 豫防醫學을 하는 사람들이 中心이 되었고, 나도 1963年 5월에 全南支部를 結成하는데 參與하였고 또 産業保健을 통한 國民 特히 勤勞者의 健康維持增進을 圖謀하기 爲하여 組織된 産業保健協會의 構成에는 1966年 3월에 全南北濟州支部 結成에 參與하였고 또한 保健 全般的인 問題와 對決하기 爲해서 特히 學問的인 面을 強調면서 만들어진 保健協會의 全南支部結成에 參與하는 등 우리와 關聯있는 모든 分野의 保健問題解決을 爲해서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여러 分野의 保健問題解決을 爲하여 우리 豫防醫學 關係者

의 先導的인 參與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間 뭐니뭐니해도 나는 豫防醫學의 發展을 爲해서는 豫防醫學을 하는 사람의 選拔과 養成이 先行되어야 할 問題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段階에서 論議되어야 할 問題입니다만 基本的으로 under graduate에서의 選拔의 立場과 post graduate에서의 養成의 立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豫防醫學을 하는 데는 醫科大學을 卒業하고 醫師가 된 다음에 自己의 進路를 決定하는데서부터 始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post graduate에서의 立場은 미루어놓고 于先 under graduate에서의 立場에서 우리는 크나큰 關心과 集中되는 專門的인 努力이 必要한 것으로 思料됩니다. 그것은 學生으로하여금 在學中에 먼저 豫防醫學에 對하여 興味를 갖고 醫師가 되어야 하는 自己자신의 人生目標에 最小限 豫防醫學에서 받은 어떠한 刺戟이 投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刺戟을 주기 爲한 우리들의 努力이 重要하다는 것입니다. 卽 醫師가 되기 爲해서 醫科大學을 選擇한 學生으로서는 아무래도 臨床的인 學問에 興味가 쏠릴 것이기 때문이며 더우기 醫學教育의 課程에서는 四學年의 醫師로써 完成되어가는 課程이 거의 臨床科의 教育으로 編成되어 있다는 事實은 우리로 하여금 醫學教育의 內容再檢討와 教育課程의 再編成에 對한 強한 慾求를 갖게하는 것입니다.

나는 under graduate의 豫防醫學教育에서 講義나 實習을 通하여 恒常 health minded doctor가 되자는 것을 強調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現在의 醫學教育은 大部分의 時間과 그 教育의 場이 疾病에 對해서, 疾病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勿論 이러한 事實을 否認하거나 批判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生活이 疾病과의 關聯下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疾病없는 健康 卽 健康을 지키고 더욱 健康해지기 爲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相對하여 生活하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일에 앞으로 從事하여야 할 初步的인 醫師를 키워가는데 確實히 健康을 意識하고 萬事を 健康에서부터 始作하는 醫師를 키워나간다는 점에 同參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health mind 助長은 醫學教育에서는 別로 言及되거나 實習技法이 提示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豫防醫學 스스로 그것을 開拓하고 啓發하고 運用해 나가야 한단데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最小限 health mind의 開發을 助長하는데는 醫學教育에 一般 social

sense 卽 社會的인 關心을 涵養해줘 나가는 것이 重要的 德目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社會, 經濟, 法律, 文化 等 醫學 以外的 우리 生活分野의 醫師에게 必要的 것들을 講義하면서 醫學徒들로 하여금 醫學自體의 學習에서 벗어나 間或 醫學 밖의 世界를 들여다보고 그것들과 醫學을 連結시켜보는 마음의 餘裕을 갖도록 해주는 醫師로서 所謂 better doctor in social sense를 指向하는 醫師로의 誘導가 아닌가 합니다. health minded doctor의 養成이 疾病과 治療를 中心삼아 論議하 고 일하기 때문에 그일에 빠져들기 쉬운 醫師를 만들어가는 現代醫學教育을 反 省하면서 豫防醫學的인 公衆保健指向的인 醫師를 키워가고 길러가야하는 것이 우리 豫防醫學하는 사람들의 責任이 아니겠는가하여 한말씀 드렸습니다.

停年이 되어 學校를 떠나고 아무래도 學問과도 멀어져가는 나를 볼때에 現 職에 있을 때 좀더 熱心히 할 것을 하는 아쉬움과 그것을 누군가가 해주었으면 하는 希望같은 것이 뒤섞여서 푸념같은 소리를 해봤습니다. 돌이켜 생각하여볼 때 누구나 다 가야하는 길을 가는 것이겠지만 沈相煌先生님을 爲始하여 모든 먼 저 加心분들의 冥福을 빌고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또 各自 하고싶은 일, 가 고싶은 길을 充分히 갈고 닦아서 後悔없는 豫防醫學者로 成長하고 完成하여 주 시기 빕니다.